

2012 새해에는

양봉환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

“천일염·해삼 세계 명품화”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안 천일염과 진도 해삼의 세계 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양봉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난 6일 청장실에서 “광주·전남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천일염과 해삼은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미래 먹을거리로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청장은 “해당 지자체와 목포대 등 연구기관, 중기청이 공동으로 천일염과 해삼의 양식기술은 물론 생산환경, 부산물(간수)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해 표준 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그동안 단순 지원에서 문제해결형 지원으로 바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 경영·기술 등의 종합처방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 청장은 “사람은 건강관리를 통해 평균수명이 81세까지 크게 연장됐으나, 중소기업은 글로벌 위기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오히려 줄고 있다”며 “기업도 사람과 같이 건강진단과 관리를 통해 체질을 강화, 어떤 위기에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기업의 생존율은 창업 5년차가 33%, 창업 20년차가 9%, 1000대 기업 27.3%에 머물고



‘중소 건강관리’ 도입 청년창업 1조원 투입

있다. 양 청장은 우선 금융·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예산의 30%를 활용해 건강관리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견기업, 민간 컨설턴트 등 경영·기술 전문가와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추진단’을 발족,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를 종합진단 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체질강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자금·기술·인력 등을 중점 지원하고, ‘부실기업’에는 M&A(인수합병) 등을 지원해 업종 전환이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 창업자금(1300억원)을 신설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 등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네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나들가게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 청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에 나들가게 321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매출 증대 등 성과가 좋은 만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은 미흡하다”면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위해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제정한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을 개선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수 소상공인·여성기업인·창업기업인 등으로 포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상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 청장은 전복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재호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 코앞인데... 과일 값 급등세

사과 14%·밤 79%·대추 35% 올라 지난해 이상기후에 생산량 크게 줄어

지난해 장마 장기화 등 이상 기후 탓에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8일 유통가에 따르면 제사용이나 선물용 등으로 쓰이는 상품(上品) 과일의 공급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 가

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농산물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후지 사과 특등급 15kg가 4만 5000원, 대추 특등급 15kg가 8만 5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3% 올랐다.

밤(상품·40kg)은 작년 9만5000원

에서 올해 17만원으로 78.9% 뛰어 올랐다. 대추(상품·14kg)는 13만5000원으로 35% 상승했고 배(산고 특품·15kg)는 4.4% 오른 5만9494원에 거래됐다.

제사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과일 값이 오른 것은 이상 기후 영향 때문이다. 작년 장마 장기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과육이 잘 발달하지 못한데다 과일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

년 전국의 배 수확량은 총 29만494t으로 전년보다 5.6% 줄면서 2000년 대를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9년보다 30.6% 감소했다.

2000년 32만4166t에 불과했던 배 생산량은 2008년 47만745t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사과 수확량도 37만9541t에 머물러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알밤은 크기가 작은 것이 많으며 만생종 출하량이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유통가는 전했다. /연합뉴스



백화점 신년세일 돌입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6일~22일까지 17일간 신년세일을 진행하며 생활, 집화, 여성·남성·아동류 등에서 30~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8층 티파니 매장에서도 고객이 아동류 아우터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LH, 실버사원 2000명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60세 이상의 고령자 2000명을 ‘실버사원’으로 채용키로 하고 다음달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7일 밝혔다. 6개월 계약직인 실버사원은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657개 단지 임대아

파트(51만가구)에 배치돼 입주자 실태 조사와 하자 보수 접수, 단지 내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한다.

LH는 2010년에도 실버사원 200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박스권 하단서 주식 더 사라

상승세로 시작한 지난 주 KOSPI는 주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국내 증시가 연초를 지나면서 유럽사태의 영향권에 다시 들어서는 모습이다.

특히, 주요 일정들을 고려할 때 지난주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기 펀더멘털보다는 유럽사태의 확대와 기업실적의 주가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유럽사태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이 없다. 일단 유럽사태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이 없다. 일단 유럽사태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이 없다.

2월~4월 일부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국제 만기 앞두고 행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제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 4/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기업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에도 꾸준한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4/4분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유럽사태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속으로 제기되며 실적 전망치 하향조정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주말 KOSPI가 주요 이동평균선의 밑집주간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단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정 이후 나타난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최근 추세의 이탈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도 탄력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연초 들어서도 거래대금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수 방향성과 함께 거래대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지금은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쏟아지는 시기라기보다는 해묵은 악재들이 해소되는 가운데 유로존 문제가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는 형국이다. 유로존 문제가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KOSPI의 박스권 하향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OSPI 1,800 ~ 1,9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업종별로는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IT·자동차 등 주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은행 ‘용 드림 이벤트’

행사 참여하면 무이자 서비스



광주은행은 2012년 용띠 해와 설 명절을 맞아 용꿈을 주제로 ‘용(DREAM) 드림(Dream)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행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행사 참여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전국의 모든 광주은행 카드가맹점 2~6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백화점과 할인마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이용액의 10%를 행사 기간에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보상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에는 광주, 전남, 서울, 경기 지역 에스오일 주유소에서 1L 당 100원을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전달 사용실적이 10만원 이상 고객에게 설 연휴 기간 ‘유스퀘어 CGV’에서 영화를 볼 때 3000원을 할인해 주는 더블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abalone dishes and text: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銀江 한정식' (Eonyang Hanjeongsik)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and text: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010년 MBC아침마당 전국 방송 소개', '촌달장 떡국개시'.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북개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4986'.